

조선 전기 독서당의 건축 양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tyle of Dogsedang in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한 재 수*

Han, Jae-S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rchitectural pattern of the Dogsedang(讀書堂)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which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aga-reagingsystem(賜暇讀書制度)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Saga-reaging(賜暇讀書) was given vacation to read books for young scholars who serve in a Royal institution chartered an academic society that we call the Giphyunjeun(集賢殿). Due to the consciousness of preference about the old Document on the history of Chosun Dynasty such as, whangchoshillok(朝鮮王朝實錄) and giligie(地理誌) and so on, I could find a clue that would lead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So to speak the division into periods about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aga-reagingsystem(賜暇讀書制度) is analysed by questionnaire of scholars who is in. By the analysis, there were two types of the Saga-reagingsystem(賜暇讀書制度) and three places in the Dogsedang(讀書堂). Vacation to read books at the single scholar's home is we called jaegadogse(在家讀書), reading area at the temple in the deep mountain district is the Sansadogse(山寺讀書). The first place reading area at the temple in the deep mountain district was the temple of Jinkwan(津寬寺), the second place was the temple of Jangyue(藏義寺) the third was the temple of youngsan(龍山寺) so called the Namhodang(南湖堂).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of viewpoint with each sit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ite of the Dogsedang(讀書堂) has deep consideration in relation with picturesque scenery.

키워드 : 조선전기, 독서당, 건축 양식적 특성

Keywords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ogsedang, A Saga Reading Space, early period of Chosun Dynas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가독서(賜暇讀書)란 조선 시대 조정에서 젊은 문신들에게 임금의 명으로 휴가를 주어 별도로 정한 독서당이란 곳에서 직무를 쉬며 글을 읽고 학문을 닦게 했던 제도이다. 세종 8년(1426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부활하여 두모포(豆毛浦)에 별개의 독서당을 짓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지닌 독서당은 관료를 대상으로 무려 백여 년 남짓 시행되어 오는 동안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위해 마련한 특수 목적의 독서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도서관의 원초적인 성

격을 지닌 건물로서 조선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은 대부분 서구문명의 동천과정에서 수입된 서양제도와 건축양식으로 알려져 온 까닭에 조선시대에도 이와 상응하는 제도와 건물 독서당이 있었으나 이것의 건축적 특성에 대하여 건축학계는 별 관심을 갖지 못했다. 더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사학과와 일반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은 많이 규명되어져온 탓에 독서당¹⁾의 건축양식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는 매우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독서당 조성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 유형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전기 독서당 건축 공간의 성격변화와 건

* 정희원, 한라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1) 이들이 글을 읽던 독서당(讀書堂)을 호당(湖堂)으로 불렀으므로 이 제도를 독서당 제도 또는 호당 제도라고도 했음.

축양식의 형성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주제와 연구범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과 도서관학 그리고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우선 역사학적인 접근은 1955년 김상기의 연구²⁾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1970년 이르러 이현희³⁾ 김기태⁴⁾ 한재룡이 관심을 갖고 관련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폭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선우는 김상기의 연구를 토대로 독서당의 유래와 위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중권은 사가독서제와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종묵은 한문학의 관점에서 독서당의 성격과 문학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독서당의 다른 측면을 발굴해냈다. 이렇게 밝혀진 기존 학계의 독서당 건축의 변천과정에 대한 견해를 요약정리해보면 세종에서 중종에 이르기까지 독서당은 기존사찰을 활용해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문헌을 좀더 상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서당 건축은 이미 세종시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관사와 장의사 그리고 용호당이 조성되어진 건축내용과 성격 그리고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온 독서당 조성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조선전기 독서당은 관련학계의 연구결과처럼 기존사찰 공간의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단순하게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가람 내 별도의 건물을 건립한 것인지, 또 특수한 전각을 대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건축적 규명과 독

서당이 북한산 주변에서 한강변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와 백여년동안 사가독서제를 운영해오는 동안 건축양식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필요성은 전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조선시대를 임진 난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시대구분 원칙을 따라 조선전기로 하였으나 독서당의 경우 중종 12년 준공한 두모포 동호당에서 건축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중종 이전까지의 독서당 건축 양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독서당 조성의 시대적 배경과 유형변화

2.1 세종시대 사가독서제의 조성배경과 독서당 유형

사가독서제가 실시된 것은 1426년 세종 8년 12월이었다. 세종은 아래와 같이 지시하면서 사가독서를 허락했다.

“집현전 부교리 권채(集賢殿 副校理 權採)와 작랑(作郎) 신석견(辛石堅) 정자 남수문(正字 南秀文)등을 불러 명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현전관(集賢殿官)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어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독서에 전심한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本殿)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 하고, 글 읽는 규범에 대해서는 변계량(卞季良)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⁶⁾”

이렇게 실시된 사가독서는 재가독서(在家讀書)였다. 선택된 사가독서인은 집현전 학사 3인이었고 집현전이 세워진지 6년 만의 일이다. 원래 집현전은 세종원년(1419년) 2월 16일 좌의정 박은이 문신을 모으고 집현전을 만들라는 계청을 한지 일년이 지난 다음 세종 2년(1420년)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 제도는 인재 양성과 문풍 진작의 필요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경서를 강론하고 시부를 짓게 했던 보문각⁷⁾(寶文閣)·학문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검직으로 국왕을 시종하게 했던 수문전⁸⁾(修文殿) 임금에게 경

2) 독서당(호당)고 진단학회 진단학보 17,1955. 독서당(호당)의 유래와 변천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향토 서울 제4호 1958
 3) 조선왕조시대의 도서관연구 독서당에 대하여 상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179, 1973
 4) 조선조 독서당(호당)의 기능과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24호, 1979
 5) 재가독서 이후 세종은 신숙주·성삼문 등 6인에게 휴가를 주어 진관사에서 글을 읽게 하였고 이후 장의사에서 읽게 했는데 세조 2년(1456년) 집현전의 혁파와 함께 독서당은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성종 7년(1476년) 다시 채수등 6인에게 독서를 위한 휴가를 주면서 장의사에서 부활된 이후 1483년 용산의 빈 사찰을 수리하여 성종은 스스로 독서당이라는 편액을 내려 사가독서 장소로 쓰기에 이르렀다. 이곳이 남호당(南湖堂) 또는 용호당(龍湖堂)으로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이 독서당도 사가독서제 폐지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한 해 사가독서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후 중종 12년(1517년) 두모포에 지어진 독서당이 동호당이다.

6) 세종실록 34권 8년 12월11일조 召集賢殿副校理權綵、著作郎辛石堅、正字南秀文等，命曰：“予以爾等除集賢官者，以其年少有將來，祇欲其讀書有實效也。然各緣職事早暮，未暇專心讀書。自今勿仕本殿，在家專心讀書，以著成效，以副予意，其讀書規範，當受卞季良指畫。”
 7) 고려 예종 11년(1116년)때 궁궐 안에 청궐간(淸讌閣)을 짓고, 문신 중 유능한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 각 1명씩 뽑아 아침저녁으로 경서를 강론하고 시부를 짓게 했던 부서였다.
 8) 고려시대 학문에 재주가 있는 문신을 선발하여 검직으로 국왕을 시종하게 하였다. 원래 문공전(文功殿)을 인종 14년(1136년) 다

적(經籍)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하는 시강기관 집현전⁹⁾ 가운데 집현전을 중심으로 세기관의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만든 통합기관이다. 처음으로 집현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고려 인종 14년(1136년)이다. 이것이¹⁰⁾ 조선에 다시 설치된 것은 정종 때이며 제조관(提調官) 교리(校理) 설서(說書) 정자(正字) 등 관원을 두고 보문각으로 개칭되었으나 큰 구실을 못했다. 그러나 세종은 건국 이래 표방해온 유교주의 국가로서 의례와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 걸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늘어나는 대명사대 관련(對明事大關聯) 외교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통치에 필요한 경전과 역사를 강론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종합적인 학술기관, 집현전을 1420년 3월 16일에 만든 것이다. 제학(提學)은 겸관으로서 명예직이었으나 부제학 이하가 전임관 바로 전임학사¹¹⁾였다. 집현전은 행수라고 했던 부제학을 실무책임자로 집현전 전임관 학사 10명으로 출발한 것이 초창기 집현전이다. 때문에 조선의 집현전은 직제면에서 소수였으나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할 학사의 수가 확보되어졌고 이를 뒷받침 할 행정체계가 갖추어진 기관으로 고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 있는 왕립학술기관으로 출발했다. 집현전관원은 문관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을 뽑았고 그 관사(官司)를 궁중에 두었으므로 집현전관원들은 경복궁 안에서 근무한 이들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였다. 여기서는 아침 저녁 식사를 직접 궁중의 내관(內官)들이 대접하였고, 책을 보는데 아쉬움이 없었다. 또한 세종은 집현전 관원을 각품(各品)의 반두(班頭)에 두었고, 신분상승으로도 특전을 베풀어 사헌부의 감찰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서적이 나오면 집현전 관리에게 여러 차례 수여하기도 하였다. 초기 집현전 관원은 경연관(經筵官) 서연관(書筵官) 종학교관(宗學敎官) 강서원관(講書院官)으로 시강과 왕실교육을 담당하면서 학문연구에 주력하였다. 사가독서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변계량의 건

의는 이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종 집권 초기부터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종은 주자소를 세우고 활자를 정비했고 많은 서책을 수집하고 책을 발간하기 시작하자 집현전의 업무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집현관원들이 독서에 몰두할만한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과 명의 관계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자 세종 10년, 1428년 이후부터 사대문서 작성을 작성하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가성균관직(假成均館職)으로 사신문안을 하는 일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관으로 사필담당과 시관으로 예조와 더불어 과거주관하고 국왕이 내리는 교서의 글을 짓는 지제교(知製敎)로서 사명(辭命) 교명(敎命)의 제찬 하는 일과 치제, 사장환급(辭狀還給) 반교 풍수학관 등 각종 서책의 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현관원들은 광범위하게 국정 전반의 일을 떠맡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고제(古制)에 대하여 연구하고 편찬사업을 하는 등 조선과 중국의 각종 사서에 대한 편찬과 주해¹²⁾하였고 학사들의 연구 편의를 위하여 많은 전적을 구입하거나 인쇄하여 집현전에 보관시키는 일을 추진했다. 이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집현관 관원의 수가 세종 18년(1436년), 32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들은 국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급급했으므로 사가독서제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세종 24년(1442년) 첨사원을 설치, 세자가 서무를 처결하게 되자 집현전은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첨사원의 관원 후보로는 서연관이 가장 유리하였는데 서연관은 모두 집현전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집현전관은 첨사원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집현전은 본래의 학문연구기관에서 언론·정치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해 세종은 대제학 권제(權躋)의 주청에 따라 다시 박팽년 등 6인에게 진관사에서 글을 읽게 함으로써 사가독서제는 재가독서에서 산사독서로 바뀌기 시작했다.

“세종이 집현전 유신 신고령(申高靈) 등 여러 명을 뽑아 휴가를 주어 진관사(津寬寺)에서 독서하게 하고, 그후에는 홍익성(洪益城) 홍응(洪應)·서달성(徐達城) 서거정(徐居

9) 시 개칭 관직은 대학사(大學士:종2품), 학사(學士:정4품)를 둔 공민왕5년(1356년) 다시 설치, 태학사(太學士)와 직학사(直學士)를 두었으나 1362년 폐지, 1369년 다시 설치 학사(學士)를 둔.
10) 고려는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개칭하고 대학사(大學士)와 학사(學士)를 둔 시강 기관으로 충렬왕 이후 유명무실해짐
11) 겸관 영전사(領殿事:정1품)2명, 대제학(大提學:정2품) 2명, 제학(提學:종2품)2명, 전임관 부제학(副提學:정3품)1명, 직제학(直提學:종3품)1명, 직전(直殿:정4품)1명, 응교(應敎:종4품)1명, 교리(校理:정5품)1명, 부교리(副校理:종5품)1명, 수찬(修撰:정6품)1명, 부수찬(副修撰:종6품)1명, 박사(博士:정7품) 1명, 저작(著作:정8품)1명, 정자(正字:정9품)1명, 학사(學士) 10명과 적당수의 노비를 둔.

12) 당시 발간된 서적으로 치평요람(治平要覽)·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정관정요주(貞觀政要註)·역대병요(歷代兵要)·고려사·고려사절요·태종실록·세종실록 등이 있다. 조선의 정치이념인 유교와 관련된 유교윤리서인 효행록·삼강행실, 유교의례집인 오례의주상정(五禮儀註詳定)·세종조상정의주찬록(世宗朝詳定儀註纂錄)이 훈민정음의 창제 결과, 보급을 위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용비어천가주해·훈민정음해례·동국정운·사서언해(四書諺解)등 편찬.

표 1. 세종시대 이후 독서당 유형 조사

왕력	서기	형식	장소	사가독서자			관련기록
				성명	인원	기관명	
8년	1426년	재가독서	개인주택	권채, 신석견, 남수문	3	집현전	세종실록
24년	1442년	산사독서	진관사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하위지, 이개, 이석경	6	집현전	세종실록
미상			진관사	신고령등 여러명		집현전	용재총화
미상			장의사	홍익성, 홍용, 서달성, 이명헌등			용재총화

正)·이명헌(李明憲) 등 여러 명을 장의사(藏義寺)에서 독서하게 하였다¹³⁾”.

용재총화 제9권에 의하면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이후의 사가독서는 장의사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산사독서의 전형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2.2 문종이후 사가독서제의 변천과정과 독서당 유형

문종원년 11월25일(1451년)에 선발된 사가독서자 서거정을 비롯한 허조, 홍응 이파등 11인¹⁴⁾이었고 자유롭게 한양 밖에서 독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조 2년 선발된 7인과 5년 6월 29일(1459년) 사가독서인 14인을 선발¹⁵⁾하였으나 선정된 사가독서인은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었고 승문원과 성균관의 학사들이었다. 그리고 겸예문(兼藝文)이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맡은 일은 없이 다만 궁궐에서 치도를 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사(政事)를 의논하는 일로 소일하는 사람들이었다.¹⁶⁾ 대상이 이렇게 바뀐

원인은 집현전 학사들은 단종1년(1453년)에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보인·김종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것과 이후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종 복위를 세조2년(1456년) 이들이 주도하자 사육신을 비롯하여 반대파 인사가 집현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현전 폐지와 함께 이들은 사가독서자로서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세조는 용산강(龍山江)가에 당(堂)을 지어놓고 관관(館官)에게 번(番)을 나누어 독서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사정을 용재총화 제2권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상사(上巳)·중추(中秋)·중양(重陽)의 가절에는 교외에서 놀게 하였고, 후히 주악(酒樂)을 내렸으니, 그 총애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문명(文名)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는 세종조의 번성하던 때와는 같지 않았다.¹⁷⁾”

이후 사가독서제가 거론된 것은 성종 5년 1474년 4월8일 홍윤성이 사가독서의 필요성을 아뢰면서 비롯되었다.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세종 때의 고사에 따라 예문관원으로 하여금 산사에 나아가 독서하게 하도록 하자고 청하였었는데, 대비께서, ‘유생은 절에 갈 수가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디나, 신숙주 같은 이도 집현전원으로서 산사에서 독서한 자입니다. 대체로 문장은 반드시 전업해야만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문관원은 적합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다시 정밀하게 선발하여 제수하고 차례로 승진시켜서 학업에 전력하도록 하게 하소서.”¹⁸⁾

이렇게 시작된 사가독서 논의는 성종 7년(1476년) 6월 14일 채수 등 6인¹⁹⁾에게 독서를 위한 휴가를 주게 되었는데 보름 뒤 6월 27일 사가 독서 문신들에게 권장할 사목(事目)이 정해졌다.

1. 각각 읽은 경사(經史)의 권수를 절계마다 개사(開寫)

- 其司而只令詣關。或論治道。或議政事。由是多有擢拔之者
- 17) 慵齋叢話卷之二 又作堂于龍山江上。館官分番讀書。又於上巳中秋重陽佳節。命遊郊外。優賜酒樂。其寵榮至矣。而有文名者。不似世宗朝之盛也。
- 18) 成宗 41卷, 5年 4月 8日條。 ” 領事洪允成啓曰: “臣曾請依世宗朝故事, 使藝文館員就山寺讀書, 懿旨以 ‘儒生不可上寺’, 不許。 如中叔舟亦以集賢殿員, 讀書山寺者也。 大抵文章, 必專業然後有成。 但今見任藝文者, 或有不稱, 更加精選授之, 以此陞敘, 以專其業。
- 19) 의정부·이조·관각 당상(館閣堂上)이 사가 독서할 문신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이조 정랑(史曹正郎) 채수·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권건(權健)·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허집(許琛)·봉상시 부봉사(奉常寺副奉事) 유희인(俞好仁), 급제(及第)한 조위(曹偉)·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양희지(楊熙止) 등이었다.

13) 慵齋叢話卷之九 世宗揀集賢殿儒臣。中高靈等數人。賜暇讀書于津寬寺。其後洪益城徐達城李明憲等數人。讀書于藏義寺。世祖革集賢殿擇儒臣有名者。謂之兼藝文。無其司而只令詣關。或論治道。或議政事。由是多有擢拔之者 成宗復設弘文館。蔡者之許獻之曹太虛權叔強楊斯行俞克己等。受命讀書于藏義寺。

14) 집현전 부교리·수찬(修撰) 허조(許樞)·정언(正言) 홍응(洪應)·교서랑(校書郎)·이파(李坡)·예문 검열(藝文檢閱) 심신(沈愼)·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박기년(朴耆年)에게 경외(京外)에서 마음대로 독서를 허락, 달마다 쌀과 술을 하사함.

15) 사헌 지평(司憲持平) 이영은(李永垠)·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 정효상(鄭孝常)·세자 사경(世子司經) 이숙감(李淑瑊)·인수부승(仁壽府丞) 민수(閔守)·봉상 녹사(奉常錄事) 어세겸(魚世謙)·성균 주부(成均注簿) 이극균(李克均)·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어세공(魚世恭)·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 허중(許琮)·성균 학유(成均學諭) 김종직(金宗直)·권지 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종직(金宗直) 등을 아울러 한관(閑官)을 제수하고 《중용혹문(中庸或問)》 각각 1건(件)을 내려 주며 사가독서케 함.

16) 慵齋叢話卷之九 世祖革集賢殿擇儒臣有名者。謂之兼藝文。無

표 2. 문종 이후 독서당 유형 조사

왕력	서기	형식	장소	사가독서자			관련기록
				성명	인원	기관명	
문종	원년 1451년	산사 독서	한양 성밖	최항, 박원순, 김수은, 이영서, 장희맹, 서거정, 허조, 홍용, 이파등	11	집현전	문종실록
	단종 1453년		"	허조, 박기년, 성훈, 김수령	4		단종실록
세조	2년 1457년		용산강 의당	노사신, 임원준, 어세겸, 정난중, 이숙감등	7	승문원 겸예문	김상기의 연구
	5년 1459년		"	이영은, 정효상, 이숙감, 민수, 어세겸, 이극균, 어세공, 허조, 김종석, 권지승, 김종직	14	"	용재총화
	11년 1466년		"	홍귀달, 최숙정, 성현, 어세겸, 정난중등	7	"	김상기의 연구
성종	7년 1476년	산사 독서	장의사	채수, 양희지, 유오인, 권건, 조위등 6명	6	홍문관	성종실록 대봉집
	17년 1486년		장의사	조지서, 최부, 박종영, 이달선, 권경유, 이승건등	8	"	성종실록
	23년 1492년	산사 독서	용호당	신용개, 김일손, 강희, 최숙생, 권오복, 이종준등	7	"	성종실록
연산군	원년 1495년		"	권달수, 남원, 성종암등	6	"	김상기의 연구
	2년 1496년		"	김전, 신용개, 이주, 김일손, 강훈, 이목, 이파, 김감, 남근, 성중업, 최숙생, 정희량, 홍언충, 박은등	14	"	연산군 일기
	4년 1498년		"	홍언충, 정희량, 김천령, 임희재등	5	"	김상기의 연구
	5년 1499년		"	미상, 홍귀달의 건의		"	연산군 일기
	6년		"	미상, 홍문관원 절목에 대한 건의와 사가독서 실시 건의		"	연산군 일기

하여 아뢰도록 할 것, 1. 매달 세 번 제술하게 하되, 예문관 관원의 월과(月課)와 함께 동시에 제술하게 하여 등제(等第)해서 권장하는데, 또한 예문관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 1. 정월·동지와 큰 경사·큰 하례 때 모두 미치는 것 외에는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²⁰⁾

집현전이 혁파된 뒤 이었으므로 집현전이 담당했던 문풍의 진흥, 인재의 양성을 예문관(藝文館)²¹⁾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의 업무는 물론 구집현전의 업무까지도 포괄한 이중적인 성격의 관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예문관은 본래의 업무보다 집현전계의 업무가 중심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노출되었고, 동시에 관원들의 자질이 낮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성종은 재위 9년(1478년) 예문관을 예문관과 홍문관²²⁾으로 분리·독립시켰다. 유학의 진흥 및 인재의 양성기관인 홍문관²³⁾은 궁중의 경서·서적의 관리, 문헌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는 것은 물론, 국왕의 호학, 정치분위기 등과 관련되어 성종 이후에는 감찰·언론 기능도 행사했다. 그리하여 홍문관은 1489년 이후부터 장내부경적(掌內府經籍)·치문헌(治文翰)·비고문(備顧問)의 기능과 감찰 및 언론기능을 행사하는 장서·문헌·시종·감찰·언론 기관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예문관²⁴⁾은 개국 초 고려의 관제에 따라 예문춘추관으로 합쳐졌던 것을 태종 1년(1401년) 춘추관을 분리하여 칙령과 교명(敎命) 기록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종 14년(1483년) 10월 16일 성종의 주장(畫講)에 나아갔을 때 참찬관(參贊官) 성건(成健)이 아뢴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사가독서제는 1470-80년대 일시적으로 정지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성종 23년 1492 4월 23일 조에 홍귀달의 아뢰는 내용에서 나타난다.

“홍문관관원의 사가독서는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정지하였는데 나이 젊은 문신이 강습을 게을리 하니 청컨대 회복시키소서²⁵⁾

....또 사가 독서는 반드시 홍문관 인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문학(文學)이 있는 자를 정선(精選)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홍문관이라고 어찌 반드시 재주 있는 사람을 다 얻겠습니까? 그 심술(心術)을 견해 취해서

22) 연산군 11년 1505년 언론기피정책으로 사간원과 함께 혁파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과 함께 복구되었다.

23)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궁내부 경연정, 궁내부 경연원으로 개칭, 1896년에 궁내부 홍문관으로 복칭되었다.

24) 예문관은 예조의 동반 정3품 속아문으로, 영사(領事:정1품)·대제학(정2품)·제학(중2품) 등은 모두 타관(他官)이 겸임, 직제학(정3품)도 승정원의 도승지가, 응교(정4품)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 밑에 봉교(奉敎:정7품)·대교(待敎:정8품) 각 2명, 검열(정9품) 4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고 전문적으로 춘추관의 일을 전담하여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고 하였다. 봉교 이하 8명의 사관들은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윤대(輪對) 등 정례행사는 물론, 백관회의(百官會議) 기타 모든 중대회의에 참석 회의록 기록, 사초(史草)를 작성과 시정기(時政記) 편찬하여 실록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25) 成宗 159卷, 14年 10月 16日(乙亥) “弘文館官員賜暇讀書, 近年凶停之, 年少文臣, 講習廢弛, 請復之.”

20) 成宗 68卷, 7年 6月 27日(戊戌) 一. 各其所讀經史卷數, 每於節季, 開寫以啓. 一. 每朔三次製述, 與藝文館員月課一時製述等第, 而勸賞亦依藝文館施行. 一. 正至及大慶大賀外, 凡一會勿參.

21) 고려시대에는 제찬(制撰)과 사명(詞命:임금의 말이나 명령)에 관한 일을 관장. 1308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등으로 불려오다가 충숙왕 12년(1325년) 춘추관을 분리, 예문관으로 하였다.

쓰기도 하는데, 다만 자주 가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모름지기 여러 해 동안 구임(久任)하여야 합니다.”²⁶⁾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성종 때 사가독서인은 홍문관원으로 중심으로 장의사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1493년 성종이 용산의 빈 사찰을 수리하여 독서당이라는 편액을 내려 사가독서하는 장소로 쓰도록 하게 한 것은 세조 이후 버려져 있었던 용산 폐사지를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이 무렵 성종은 중관(中官)을 보내어 독서당에 술을 내려 주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김감(金勘)이 전문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였는데 성종 24년 1493년 1월16일이었다. 성종은 그해 5월11일 승정원에 아래와 같이 전교했다.

“용산강의 독서당이 낙성되었으므로 그 편액(扁額)과 기(記)를 내일 안에 걸어야 하겠으니, 홍문관의 관원이 죄다 그 곳에 모이게 하라. 내가 주악을 내리겠다.”²⁷⁾

이곳이 바로 남호당(南湖堂) 또는 용호당(龍湖堂)이다. 이후 연산군이 즉위 이듬해 2년(1496년) 12월15일 이조에서 사가 독서할 사람으로 추천한 것은 김전(金銓)·신용개(申用溉)·이주(李胄)·김일손(金翹孫)·장훈(姜渾)·이목(李穆)·이과(李顥)·김감(金勘)·남곤(南袞)·성중엄(成重淹)·최숙생(崔淑生)·정희량(鄭希良)·홍언충(洪彦忠)·박은(朴聞) 등 14인이었다. 이렇게 사가독서제는 연산군 초기에도 3년간 잘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독서당도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이후 이 홍문관제도와 함께 독서당도 연산군11년(1505년) 11월 11일 폐지되었다. 이후 독서당은 중종이 즉위한 해 사가독서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정업원에서 시행되었다. 중종 12년(1517년) 두모포에 다시 독서당이 지어졌는데, 이곳이 동호당이다.²⁸⁾

3. 독서당의 건축 공간적 특성분석

3.1 진관사(津寬寺) 독서당의 규모와 성격

진관사²⁹⁾는 조선시대 수륙재(水陸齋)의 근본도량으로서

명성을 떨친 사원으로 권근이 지은 진관사 수륙사조성기(津寬寺水陸社造成記)에 그 전모가 수록되어있다.

“태조는 재위 6년(1397년) 정월 내신 이득분(李得芬)과 중 조선(祖禪)에게 나라일로 죽어 제사조차 받지 못하는 굶주린 영혼을 위해 수륙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제회(齊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받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명하자 사흘째 되던 날 이득분과 서운관의 상충(尙忠)·양달(陽達)·중 지상(志祥)이 삼각산과 도봉산을 답사 결과 수륙재 열기에 가장 적합 곳으로 추천한 곳이 진관사였다. 태조는 진관사에 수륙재(水陸齋)도량으로 공사를 대선사(大禪師) 덕혜(德惠)·지상 등을 명하여, 중들을 소집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공사가 시작된 것은 그 달 경진일이었으며 2월 신묘일에 태조는 친히 와서 구경하고, 3단(壇)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3월 무오일에도 거동하였다. 1397년 9월에 이르러서 공사가 끝났는데 3단이 집이 되었는데 모두 3칸이며 중·하의 두 단은 좌우쪽에 각각 욕실(浴室) 3칸이 있고, 하단 좌우쪽에는 따로 조종의 영실(靈室) 8칸씩을 설치하였다. 대문·행랑·부엌·곡간이 갖추어지고 시설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 59칸인데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제도에 맞았다³⁰⁾.”

원래 진관사가 창건된 것은 현종재위 원년(1011년) 가을에 시작해 만 1년 동안 공사하여 1012년 가을 준공 당시 대웅전은 사방 10칸, 동서 승당이 각 30칸, 청풍당(淸風堂)과 명월요(明月寮)가 각 10칸, 제운루, 정계소, 일주문, 해탈문, 종각, 창고 등 상당한 규모를 지닌 사찰이었다. 또한 불상과 장엄구, 일상도구 등 사찰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현종이 지원하였다. 현종은 이 진관사에 최고의 정성을 모아 불사를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완공 그해 10

사(三川寺)가 있는데 홍제원에서 회암사 가는 길목에 있는 사찰이다.

30) 東文選 卷之七十八 記 津寬寺水陸社造成記 洪武丁丑正月乙卯。上命內臣李得芬，沙門臣祖禪等若曰。予有邦家。惟賴祖宗積慶。圖報先德。靡所不力。又念臣民或死王事。或自殞命。而無主祀。飢餓顛 隲於冥冥之中。而莫之救。予甚愍焉。欲於古刹。爲 建水陸道場。歲設以追祖宗冥福。且利群生。爾往相之。越三日丁丑。得芬等。與書雲觀臣尙忠，陽 達沙門志祥等。相自三角山。至道峯山。復命曰。諸刹不若津寬寺之勝。於是上令置道場於是 寺。爰命大禪師德惠志祥等。召集僧徒。以事營作。內臣金師幸尤致力焉。以其月庚辰。始興其役。二月辛卯。上親臨觀。定其三壇位次。三月戊午。又幸觀之。至秋九月。功乃告訖。三壇爲屋。皆三 間。中下二壇。左右又各有浴室三間。下壇左右。別 置祖宗靈室各八間。門廊廚庫。莫不備設。凡五 十有九間。不侈不陋。以中厥度。是月三十四日癸 酉。上又親觀。丁丑。命召臣近。記其始末。

26) 成宗 264卷, 23年 4月 16日(丙辰) 貴達曰: “弘文館在密近之地, 法司不得檢覈, 官員多不勤仕 請自今特命糾擿, 或使政院檢舉。

27) 成宗 277卷, 24年 5月 11日(甲戌) 傳于承政院曰: “龍山江讀書堂已成, 其扁(額) [額] 及記, 宜及明日懸掛, 令弘文館員盡會于彼, 予將賜酒樂。”

28) 이렇게 이어진 사가독서제는 임진왜란이후 명맥만 이어오다가 숙종 35년(1709) 이후 폐쇄되었다.

29) 진관사의 위치는 삼각산(三角山) 비봉(碑峰) 서쪽 줄기인 매봉 남쪽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 원효가 세웠다는 삼천

월에 낙경법회(落慶法會)를 연 후 죽음을 무릅쓰고 어린 대량군(大良君, 후일 현종)을 보호 고려 왕실을 잇게 했던 진관대사를 국사로 책봉한 유래있는 사찰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본다면 조선 태조에 이르러 진관사는 수륙재 기능이 첨가되면서 수륙사 도량으로 성격이 바뀐 것으로 생각되며 세조는 수륙사를 독서당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 역시 불교를 배척하였으나 太宗 13년(1413년) 진관사에서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열고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으며, 수륙재위전(水陸齋位田) 100결을 하사하여 재를 계속하게 하였다. 이후부터 이절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 15일에 수륙재가 열려 조선왕실의 명실상부한 수륙도량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세종3년(1421년) 태종 내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재를 올린 이후부터 왕실의 각종 재를 봉행하는 사찰로 국가에서 정례화시켰다. 이런 유래를 지닌 사찰에 세종은 재위24년(1442년) 집현전 학사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과 같은 선비³¹⁾들로 하여금 태조 때 진관사에 별도로 건축된 수륙사에서 머물며 독서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진관사는 문종2년(1452년)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는데, 세조 9년(1463년) 화재로 가람 일부가 소실되었으므로 독서당으로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3.2 장의사(藏義寺) 독서당의 장소성

이후 산사독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분명치 않으나 대봉집(大峯集)을 보면 성종7년(1476년) 조위(曹偉)등이 사가독서한 곳이 장의사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원래 장의사는 통일신라 직전에 창건되었고 이후 고려 역대 왕들의 임행(臨幸)까지 있었던 사찰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하여 한양에 정도하게 되면서 태조는 재위 7년(1398년) 신의왕후(神懿王后)의 기재(忌齋)를 장의사에서 베풀었고 태종은 재위 8년(1408년) 6월 참경(懺經) 법석을 베풀었다. 그리고 세종 원년(1419년) 이곳에서 5번째 재를 베풀었고 재위 4년 태종의 재를 처음으로 베풀었으며 26년(1444년) 기우제를 세종28년(1446년) 3월 초재(初齋)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이후 단종 때 수차례 재를 베풀었으며 세조는 재

위 9년(1463년) 6월 우의정 한명회(韓明澮)·호조 판서 조석문(曹錫文)에게 명하여 장의사의 수륙사(水陸舍) 건립을 감독하게 하고, 예빈시 윤(禮賓寺尹) 김달전(金達全)·군자직장(軍資直長) 민혜(閔愷)를 감역관으로 삼았던 곳이다. 이후 성종때 이르면 이곳은 즉위년(1469년) 사재(四齋)가 베풀어졌고 재위5년(1474년)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초재(初齋)와 삼재 오제가 재위 6년(1475년) 7월 축수재(祝壽齋)가 베풀어진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세종8년(1426년) 4월 윤봉이 다음해 6월 창성(昌盛)과 백언(白彦)이 그리고 세종11년(1429년) 12월 김만(金滿)이 진입과 같이 장의사를 유람했고 세종12년(1430년) 8월 창성(昌盛)은 장의사를 구경할 정도로 이곳 풍광은 수려했다. 말하자면 장의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곳으로 경관성이 수려한 곳인 셈이다. 이곳 위치에 대하여 김선우는 용제총화를 근거로 세검정초등학교 일대³³⁾로 비정한 바 있는데 그 일대 경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 글로 성현³⁴⁾(成峴)이 지은 용제총화(慵齋叢話, 국역대동야승,1)¹⁾가 있다.

“성 밖의 놀 만한 곳으로는 장의사 앞 시내가 가장 아름답다. 시냇물이 삼각산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나오고 골짜기 속에 여제단(厲祭壇)이 있으며, 그 남쪽에 무이정사(武夷精舍)의 옛터가 있다. 절 앞에 돌을 쌓은 것이 수십 길이나 되어 수각(水閣)을 이루고 절 앞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차일암(遮日岩)이 있는데, 바위가 절벽을 이루어 시내를 베고 있는 것 같으며, 바위 위에 장막을 둘러싼 우묵한 곳이 있다. 바위가 층층으로 포개져 계단과 같으며, 흐르는 물이 어지러이 쏟아지는데, 맑은 날의 우레처럼 귀를 시끄럽게 한다. 물은 맑고 돌은 희어 선경이 완연하니, 와서 노는 사대부들이 그치지 않는다. 물줄기를 따라 몇 리를 내려가면 불암(佛岩)이 있는데, 바위에 불상을 새겼고, 시냇물이 꺾여 돌아 북쪽으로 가다가 또 곧장 서쪽으로 흐른다. 그 사이에다 옛날에는 물방아를 놓았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거기서 얼마를 더 내려가면 홍제원(洪濟院)이다. 홍제원 남쪽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 큰 소나무가 가득하다. 옛적에는 이곳에 정자가 있어 중국 사신이 옷을 갈아입던 곳이었는데, 정자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사현(沙峴) 남쪽 모화관(慕華館) 사이에는 좌우에 큰 소나무와 밤나무 숲이 서로 짝은 그늘을 이루었으므로 사회(射會)하러 오는 도인(都人)이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으나 흐르는 시내

31) 성삼문과 신숙주는 사가독서 할 즈음에 세종께서 세손인 단종을 특별히 부탁받았던 인물이고 박팽년, 하위지 이개는 성삼문과 함께 어린 단종을 복위코자 노력하다 죽음을 당한 사육신이다.

32) 成宗 1년1470 벽운(碧雲)스님이 다시 중건하고, 哲宗 5년1854 1858년에 중수되었으며, 高宗 16년1879 당두화상(堂頭和尚) 경운(慶雲)대선사가 큰방 34칸을 지어 대가람을 형성하게 되었다.

33) 김선우 독서당의 由來와 그 위치에 관한 고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23, 1988

34) 세종 21년(1439)~연산군 10년(1504) 활동한 문인으로 문장, 시, 그림,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룬 잡록 형식의 글 모음집인 <용제총화 慵齋叢話> 를 저술했다.

가 맑지 못하다.”³⁵⁾

여기서 ‘장의사 전계(前溪)’란 지금의 사천(沙川)(일명 홍제원천(洪濟院川) 모리내를 말하며 이며 수각(水閣)’ 일대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장의문외(藏義門外) 수각(水閣), 금위당춘대(今爲蕩春臺)’이므로 한북문(漢北門)(일명 탕춘대 성문(湯春臺成門)이라 불리우는 지금의 홍지문(弘智門)) 부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한경식략에 의하면 개국초기부터 이 근처에 조지서(造紙署)³⁶⁾가 있고 탕춘대 부근 민가 수백호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들은 제지업을 전문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지장(紙匠)과 차비노(差備奴)의 주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장의사는 경관구성이 앞에서 열거한 외교사신 등과 회동 할 인물들이 시문연습(詩文練習) 및 독서하기에 적합한 경관성을 지닌 궁성 근처 도성 밖 사찰이었고 특히 창의문 길은 진관사 가는 길목으로 사가독서지로 최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3 남호 독서당 용호당의 건축사적 의미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은 일명 용산독서당(龍山讀書堂)이 처음 독서당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세조 때였다. 그러나 이곳을 사용하지 않고 장의사로 다시 옮겨갔는지 분명치 않다. 이후 용산강가에 독서당을 세우자는 의견이 대두하게 된 설립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성종실록 22년(1491년) 8월 21일조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홍문관의 관원은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했는데, 지난번 농사가 흉년이 된 때문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좋다. 다만

어느 곳에서 글을 읽게 하겠는가?” 하니, 정경조가 아뢰기를, “그전에는 혹은 장의사에서 읽기도 하고, 혹은 귀후서(歸厚署)의 공사(空寺)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하자, 임금은, “이 무리들은 곧 성인(聖人)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찰에 거처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은 일이 많으니, 일이 뜸하기를 기다려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하였다.³⁷⁾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조에 실린 조위(曹偉)의 용산 독서당기를 보면....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여서는 먼저 예문관을 개설하여 옛 집현전 제도를 회복하고,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가서 크게 문적(文籍)에 정통하고 유술(儒術)을 높여 숭상하니, 인재의 육성이 옛 보다도 더함이 있었다. 병신년에는 다시 조종조의 고사(故事)를 써서 채수 등 6명에게 휴가를 주었으며, 금년 봄에는 또 김감등 8명에게 휴가를 주어 장의사에 가서 글을 읽게 하였으며, 음식 맡는 관리는 음식을 대고 술 맡은 관리는 술자리를 마련하며, 때때로 중사(中使)를 보내어 물건 하사하기를 자주하였다.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 “성 밖에 땅을 선택하여 집을 지어 독서하는 장소로 삼게 하라.” 하니, 정원에서 회보하기를, “용산의 작은 암자가 지금 공청(公廡)에 속하여 폐기되었는데, 수리하면 앞이 띄어 밝으며 그윽하고도 넓어서, 공부하고 쉬는 데에는 여기가 제일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청원을 옳게 여기고, 관원을 보내어 공사를 감독하여 두 달이 걸려 낙성되니, 집이 합하여 겨우 20칸이었다.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스하여 모두 알맞았다. 이에 ‘독서당’이라고 사액하고, 신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였다고 했다. 이 독서당의 위치와 유래 그리고 근처 경관을 남긴 사료는 네 가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다.

“독서당은 옛 용산에 있는 폐사인데 강 북쪽 언덕에 있다.”³⁸⁾

그리고 용제총화 9권에 용산 폐사의 내력이 적혀있다.

...옛날 승사(僧舍)가 남호 귀후서(歸厚署) 조선 시대 장례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아)뒤 언덕에 있는데, 세상에서 16나한이 영험이 있다 하여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았다. 중 상운(尙雲)이 그 사(舍)에 거처할 때 장가를 들어 아들

35) 慵齋叢話卷之一 :城外可遊處。則藏義寺前溪最佳。溪水出自三角山諸谷。谷裡有厲祭壇。其南有武夷精舍古基。寺前累石數十丈爲水閣。寺下數十步有遮日巖。巖斗絕枕溪。巖上有張幕窠臼。且巖石層疊如階級。奔流亂射。晴雷聞耳。水清石白。宛有塵外勝致。衣冠來遊者不絕。循流而下數里。有佛巖刻巖留像。溪水折旋而北。又直西流。其間古置水磴而今亡。其下數里洪濟院。院南有小邱。長松滿邱。其古有亭。爲皇華易服之處。而亭廢已久矣。沙峴以南慕華館之間。左右長松栗林。重重交蔭。都人射帳迎送者多聚此。然無馮溪清流。...

36) 한양 근교 한지(韓紙) 제조에 적당한 물 좋고 바위 넓은 자하문 밖 탕춘대(蕩春臺)에 설치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는 제지기술자인 지장(紙匠) 81명, 보조역차비노(差備奴)가 90명이 있던 수공업장이었다. 지장은 조선의 '부역동원제'에 의해 3교대로 동원된 이들은 전업수공업자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지기술자들이었으므로 국내 최고 품질의 종이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천하무비(天下無比)로 알려졌다.

37) 成宗 256卷, 22年1491 8月 21日(乙丑) 御夕講。講訖, 都承旨鄭敬祖啓曰: “前此弘文館員賜暇讀書, 曩因年飢廢之, 請復舊。” 上曰: “可, 但於何處讀之乎?” 敬祖曰: “前者或於藏義寺, 或於歸厚署、空寺。” 上曰: “此輩乃學聖人者, 而使處寺刹可乎? 今則多事 待事間別構一堂爲可。”

38) 新增東國餘地勝覽 卷3 漢城府 宮室條 讀書堂 舊龍山弊寺 在江北岸

을 낳았는데, 사헌부가 중에게 죄를 신문하여 처벌하고 속인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불상은 흥천사(興天寺)로 옮겼다. 그리고 그 집을 흥문관에 주어 번(番)을 나누어 독서하게 하니, 독서당이라 하였다³⁹⁾.

마지막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2권 경도하(京都 下)의 내용으로 귀후서는 용산강에 있으며, 관곽(棺槨) 제조를 관장한다. 분서(分署)가 남부 호현 방에 있는데, 장례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정이오(鄭以吾)가 지은 기문을 보면, “영락(永樂) 4년 7월 바로 태종6년(1406년) 7월...임금이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고, 유사에게 명하여 쌀 30섬과 오종포(五綜布) 백 필을 내주어 관곽소(棺槨所)를 용산강 가에 설치하고서, 자은종 도승통(慈恩宗都僧統) 신 종림(宗林)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도 각기 쌀과 베를 내어 이 일에 협조하는 이가 매우 많았으니, 양심의 발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종림이 명에 따라 일하기를 즐거워하여 재물을 사서 널을 만들고, 쌀 값으로 팔아서 죽은 자를 전송하는 자들에게 유감이 없게 하였다. 뒤에 종림이 죽고, 그의 제자 해선(海宣)이 그 뜻을 이어받아 그 사업에 더욱 힘쓰자, 전하께서 또 노비 60명과 토지 50결을 내려 주었으니, 거기에 노역하는 사령(使令)을 넉넉히 하고 공급하는 곡식과 재정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귀후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백성의 덕이 후덕하게 된다는 민덕귀후(民德歸厚)의 뜻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독서당은 남호 북쪽의 귀후서 뒷산 언덕에 있는 폐사지임이 분명하며 남호, 용산강이 한강진이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서강 사이에 있는 한강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한경식락에서 별명⁴⁰⁾ 군량창고가 있는 다락 읍청루가 절경⁴¹⁾이라고 한점으로 미루어보아 이곳은 수선전도의 마포와 만초천 사이에 있는 능선줄기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성종실록을 보면 ‘귀후서의 공사(空寺)’는 용산독서당기(龍山讀書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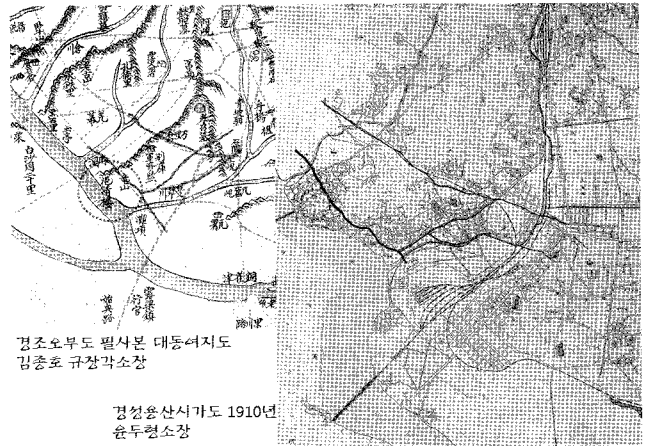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 경성 용산 시가도에 표시한 읍청루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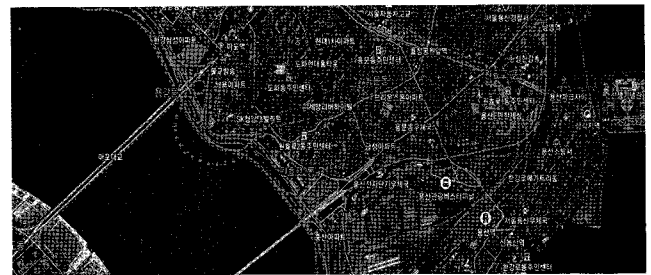


그림 2. 다음지도에 표기한 읍청루위치

記)의 ‘용산소암(龍山小庵)’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 폐기된 공해(公廡)가 있었다고 한 점, 용재총화 제2권에 세조시대 만든 용산강가의 당(堂)은 이곳을 지칭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바로 이곳이 성종 24년부터 연산군 10년 혁파(革罷)하기까지 10년간 독서당으로 사용되었던 터라고 생각된다. 실제 위치를 김정호가 그린 경조오부도의 읍청루 위치와 주변도로체계를 1910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성용산시가도를 비교해 보면 도로체계는 선형이 대략 일치하고 있다. 경조오부도에 표기된 읍청루의 위치는 용산강가에 근접해있으므로 이 위치를 1910년 경성용산시가도 표기해보면 대략 마포와 만초천 사이에 있는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금호전기빌딩과 벽산빌라 자리 근처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귀납해보면 태종 무렵 승 종림이 관곽짜는 일을 즐겼던 귀후서 터는 용호당이 세워진 언덕아래의 터였으므로 현재 강변북로에 해당한다. 이곳에 처음으로 독서당을 세운 사람은 세조였다. 그는 등극하면서 이곳에 당을 짓고 독서당으로 잠시 사용하였으나 그가 죽자 이곳 역시 폐가가 되면서 절터로 변했는데 중 상운이 절로 사용하면 행실이 좋지 않자 조정은 이것을 빌미로 그를 쫓아내고 흥문관에 주어 관원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성종이 이곳에 독서당 건물 20여 칸을 짓게 된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용산강가의 용호당은 독서당 전

39) 慵齋叢話卷之九:舊有僧舍在南湖歸厚署之後岡。世稱十六羅漢有靈驗。香火不絕。有僧尙雲居其舍。聚妻生子。憲府鞠之。罰僧還俗。移佛像于興天。遂以其舍給弘文館。分番讀書。名曰讀書堂。

40) 동국여지(東國輿地)를 보면 도성 밖 서남쪽 10리에 있는 용산강에 군사감(軍資監)과 훈국(訓局)의 별명(別營)이 있다고 했다. 분감(分監)은 승례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강감(江監)이 용산강(龍山江) 북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41) 훈련도감은 서부 서경방(西慶坊)에 있다. 선조 27년에 처음 세웠고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훈련도감을 훈국(訓局)이라고도 하며, 별명(別營)은 선조 29년에 용산에 설치하고 훈국(訓局) 군병의 식료를 공급하게 하였다. 군량창고 다락 이름은 읍청루(淸樓)라 하며 한강 언덕에 있어 명승으로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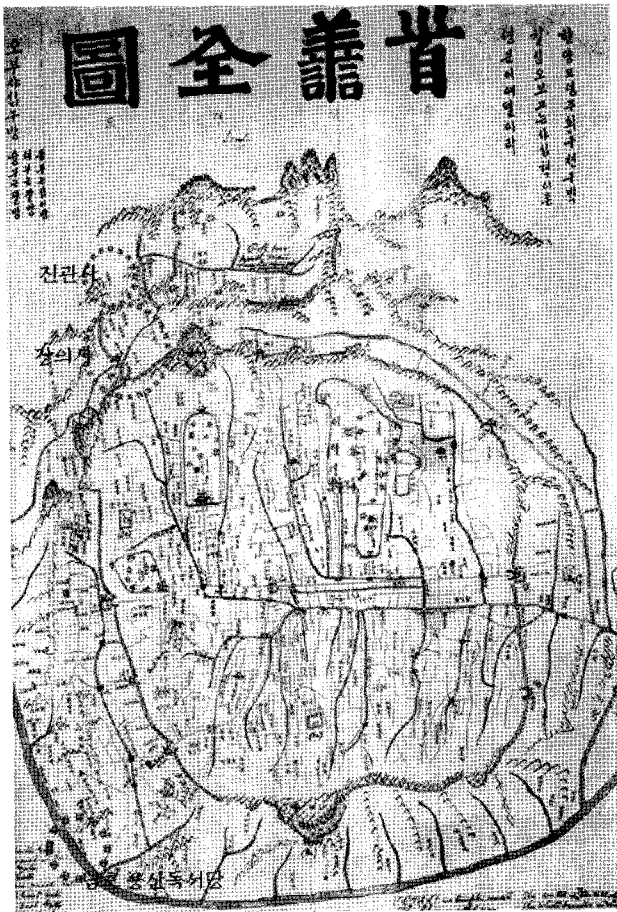


그림 3. 수선전도에 표시한 조선전기 독서당위치 99x70cm
1882년 필사본 연세대학 박물관 소장 영인본

용건물의 신축으로 동호 독서당 건축의 시발점이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3.4 독서당 건축양식의 변화

조선시대 독서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세종 8년(1426년) 대제학 변계량이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 가운데 학문이 빼어난 이들에게 사가독서를 시킨 장소를 마련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 독서할 곳은 재가독서이었다. 그러나 1442년 신숙주등 6인에게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할 무렵 독서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산사독서 공간 진관사이었는데 이 절은 원래 고려시대 가람이었으나 태조 때 수륙사가 가람 내 조성된 이후 세조 때 까지 수륙제가 배풀어졌던 곳으로 세종은 이곳을 독서당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453년 집현전을 혁파한 수양대군은 즉위하자마자 겸예문(兼藝文)이라 하는 유신집단 가운데 사가독서자로 뽑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말은 없이 다만 궁궐에서 치도를 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사(政事)를 의논한 사람들로 세종대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독서공간으로 사용해왔던 진관사가 화재로 가람일부가 불에 타자 세조는 동기는 분명치 않으나 용산강가의 귀후서터에 있는 절집 일부를 독서당으로 사용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성종7년(1476년)은 예문관을 설치하고 채수등 6인에게 독서를 위한 휴가를 주어 다시 장의사에서 사가독서제도를 되살렸다. 그리고 세조시대 사용했던 용산의 옛 독서당 터에 20여칸 독서당건물을 짓고 친히 독서당이라는 편액을 내려 남호당 또는 용호당이라 했다. 그러나 연산군 시대에 접어들면서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발생하자 사가독서제 폐지와 함께 이곳은 다시 폐쇄되고 말았다. 건축 유형으로 볼 때 진관사의 경우 독서당으로 사용했을 수륙사(水陸社)는 3단 집으로 중·하의 두 단은 좌우쪽에 각각 욕실(浴室) 3칸, 하단 좌우쪽에 따로 조종의 영실(靈室) 8칸씩을 설치 대문·행랑·부엌·곡간등 모두 59칸의 독립된 기능을 지닌 별채의 건물로 추정된다. 특히 정종2년 개국공신의 원불(願佛)인 인왕불(仁王佛)을 안치하고 수륙제(42)를 지낸 창덕궁 안 문소전 옆 내원당(43)에 비하면 진관사의 그것이 규모와 비중이 상당한 건물이었으므로 독서당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어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장의사와 용호당은 우선 세종시대 사용했던 진관사 가람의 일부가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이 불가해졌던 반면 이 두 곳은 풍광이 수려하여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은 관원으로 하여금 사장(辭章, 詞章) 바로 시를 짓고 풍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곳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가 발생한 것은 당시 조선을 찾아온 명나라 사신들 대접이 한강변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사장을 짓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외교문서 작성과 명 사신의 접대 등으로 한시와 문장을 잘 짓는 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44) 이를 위한 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독서당은 진관사의 수륙사보다 계곡을 지닌 장의사가 더 적합했고 뱃놀이와 어우러진 사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자 성종 때 한강변에 있는 남호의 용산 폐사에 독서당을 다시 짓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동호 독서당 건축의 계기를 제공하는 과도기적인 독서당 유형으로 생각된다.

42) 왕실·국가의 안녕과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제사인데 원래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과 아귀(餓鬼)를 위해 불법(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행사였다.
43) 불전·승당·선실을 포함해 26칸이었다
44) 경국대전에 초시의 삼장(三場), 복시의 중종장(中終場), 전시의(殿試)는 모두 사장 중심의 제술시험을 보도록 규정했다.

4. 결론

조선전기 독서당의 건축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선전기 세종8년(1426년) 집현전을 배경으로 사가독서제가 만들어지면서 재가독서로 시작된 독서당은 세종24년(1442년) 진관사내 수록사를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산사독서로 바뀐 다음 장의사를 독서당으로 사용하여 산사독서의 전형이 형성하였으며 세조는 용산강가에 당을 짓고 독서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선전기 독서공간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이 무렵 마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서당의 위치와 장소성을 살펴보면 진관사는 삼각산 비봉 서쪽 줄기인 매봉 남쪽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원에서 회암사 가는 길목에 있는 사찰로 경관의 특성이 드러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장의사는 세검정 초등학교 근처로 창의문 일대로 계곡의 경관이 수려한 곳이었으며 남호 독서당은 세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용산강을 바라보는 마포와 만초천 사이 능선마루의 읍청루 자리로 금호전기와 벽산빌라 근처인 점으로 미루어보면 세종이후 한강변에서 뱃놀이를 중심으로 명나라 사신 대접이 빈번해진 조정의 입장 때문에 이를 위한 인재양성 차원에서 독서당의 위치가 한강변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진관사 독서당은 조선 태조 때 지은 수록사를 세종이 독서당으로 활용한 것이었고 장의사 역시 태종과 세종 그리고 단종이 이곳에서 재를 베풀었고 세조는 수록사(水陸舍)를 건립했으므로 다분히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했거나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종22년(1491년) 지은 남호의 독서당은 여지까지 수록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던 산사독서의 독서당조성방식과는 달리 조정(朝廷)에서 필요로 하는 사장학의 면모가 명확하게 반영된 시도였고 동호 독서당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를 이룬 건축유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전기 독서당 건축은 성종의 남호 독서당에 이르러 비로소 조정에서 필요한 독서공간으로서의 건축적 형식을 스스로 갖추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사가독서제는 정례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독서당이라는 건축공간을 활용하여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인을 꾸준히 양성해왔으며 조정은 독서공간을 선정함에 있어 경관성을 중시함으로써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독서당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조선전기 중종이전의 독서당에 한 하였으므로 중종시대 독서당

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별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編, 探求堂, 1970
2. 新增東國餘地勝覽, 古典刊行會刊, 東國文化社, 1958
3. 大東野乘, 朝鮮古書刊行會刊, 1909
4. 宮闕誌, 서울 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刊, 서울史料叢書三, 1957
5.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 研究會編, 1977
6. 이종묵,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활동, 韓國漢詩會 韓國漢詩研究 8, pp.5~44, 2000
7. 김선우, 讀書堂의 由來와 그 位置에 관한 考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12
8.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1 권, pp.108 1~1084, 1977. 12
9. 金庠基, “독서당(湖堂)고”, 진단학보 제 18권, 진단학회, 1955
10. 金庠基, “독서당(湖堂)의 유래와 변천”, 향토 서울 제 4권, 서울 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58

접수 2011. 6. 15

1차 심사완료 2011. 7. 14

2차 심사완료 2011. 7. 23

계재확정 2011. 7. 23